

## 듣기 대본 (1번 ~ 30번)

※ [1~4]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3점)

1. 여자: 요즘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하게 느껴져.  
남자: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표회 잘 끝냈다고 좋아했잖아. 왜 갑자기 기운이 빠져서 그래?  
여자: \_\_\_\_\_

2. 여자: 우리 모임 운영비가 또 부족하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회장한테 물어봤더니 글썽 회비를 안 낸 회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 있지.  
남자: 그게 왜 책임을 회피하는 거지? 회비를 안 낸 회원들이 잘못된 거잖아.  
여자: \_\_\_\_\_

3. 남자: 이 그림 정말 멋지다. 몇 개의 선만 사용해서 간결하게 풍경을 표현했잖아. 정말 독특한 느낌의 그림이야.  
여자: 그러게.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인상을 주네.  
남자: \_\_\_\_\_

4. 여자: 라디오 1분 건강입니다. 김 박사님, 오늘의 건강 상식은 무엇인가요?  
남자: 네, 보통 식사 후에 바로 자리에 눕는 것이 소화 불량을 일으킨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식사 후 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20~30분 정도 잠을 자거나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 \_\_\_\_\_

※ [5~7] 다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5. (3점)

여자: 점자는 종이나 물체의 표면에 볼록한 점을 만들어서 손가락으로 읽을 수 있도록 고안된 글자입니다. 초기에 점자는 점자책을 만드는 데에 주로 쓰였는데요. 최근에는 공공장소의 안내 표지나 상품의 포장, 그리고 제품 설명서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점자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6. (4점)

남자: 예로부터 지도는 제작 과정에서 지배층의 목적을 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정부는 경쟁국의 영토를 의도적으로 크게 표시해서 국민들이 경쟁국을 보다 위협적으로 느끼도록 자극했고, 또 다른 정부는 자신의 나라를 세계 지도의 중심에 그려서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배층은 지도에 이념을 담아서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려 한 것입니다.

## 7. (4점)

여자: 미래학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이 상상력은 과거에 대한 지식이 전제된 것이어야 하고요. 과거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만이 개연성 있는 미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미래학자는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세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8~10]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 8. (3점)

남자: 얼마 전 한 대학의 연구팀에서 인간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색깔을 식별하는 능력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피로한 상태에서의 실험에서 '회색'을 보고도 '흐린 녹색'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일곱 시간 이상 잠을 잔 후에는 정확히 '회색'이라고 대답했지만요. 어느 날 여러분 방의 벽지 색깔이 좀 달라 보인다면 혹시 너무 피곤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9. (3점)

여자: 금성과 지구는 크기가 비슷해서 '형제 별'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금성과 지구의 표면 환경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금성의 기압은 지구의 90배에 달하고 금성 지표면의 온도는 460도로 지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기압이나 온도와 같은 단편적인 정보들만 수집된 상태지만 본격적인 탐사가 가능해지면 두 별 사이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0. (4점)

여자: 여러분, 편안한 자세에서 어깨를 위, 아래 또는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이게 바로 한국의 어깨춤입니다. 어, 기분에 따라 팔이나 고개를 함께 움직여도 좋고 동작의 크기나 빠르기를 자유롭게 조절해도 좋습니다.

남자: 이렇게 그냥 흔들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여자: 아, 네. 어깨춤은 춤사위에 고정된 형식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표현해도 좋아요.

남자: 아, 그냥 흥이 나는 대로 추면 되는 거군요.

여자: 네.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때 즉석에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잖아요. 이렇게 어깨춤은 기교나 틀에 매이지 않는 춤이에요.

※ [11~13] 다음을 듣고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1. (3점)

여자: 오늘 텔레비전에서 ‘바다의 날’ 기념식을 하더라고요. ‘금연의 날’, ‘책의 날’, ‘주부의 날’ (잠시 쉬고) 별의별 기념일이 다 있네요.

남자: 맞아요. 그런데 기념일마다 기념식들은 많이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행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관계자들끼리만 모여서 틀에 박힌 기념식을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기념일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면 좋겠어요.

## 12. (4점)

남자: 일부 전문가들은 2015년쯤에는 석유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이며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에게 석유가 없는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석유가 정말 그렇게 쉽게 고갈될까요? 산유국들이 정확한 석유의 매장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긴 하지만 저는 실제 매장된 석유가 알려진 것보다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채굴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접근이 어려웠던 깊은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낼 수도 있고요.

## 13. (3점)

여자: 박사님. 이번에 어렵게 개발해서 특허를 받은 향암 버섯의 독점권을 포기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남자: 음. 사실 그동안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향암 버섯의 대량 생산과 유통이 가능해질 것이고 결국 암 환자들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향암 버섯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기여하는 것이 더 뜻 깊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 [14~15] 다음 그림을 보고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십시오. (각 4점)

14.

<대본>

- ① 남자: 어, 한동안 안 보이길래 졸업을 했나 했는데. 어디 갔었어요?  
여자: 네, 교수님. 제가 지난 학기에는 휴학을 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복학했으니까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 ② 남자: 아, 정말 잘됐네요. 졸업하자마자 모두들 부러워하는 직장에 가게 되고.  
여자: 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교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오늘 이렇게 학사모를 쓸 수 없었을 거예요.
- ③ 남자: 저, 앞에 있는 자동 발급기에서 성적표를 출력하려고 했더니 발급이 안 된다고 나오네요.  
여자: 졸업생이시지요? 졸업생은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셔야 발급이 되거든요.
- ④ 남자: 이력서를 보니까 김수미 씨는 대학 졸업 후에 얼마간 공백 기간이 있었네요.  
여자: 아, 네. 여러 나라로 배낭여행을 다녔습니다. 견문도 넓히고 경험도 쌓으려고요.

15.

<대본>

① 남자: 김 대리, 여기 화면 좀 봐요. 위에 있는 도표하고 아래에 있는 설명이 맞지가 않아요. 수치가 틀린 거 아니에요?

여자: 어머. 아까 고쳤는데 저장을 안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② 남자: 어, 엘리베이터가 고장인가 봐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 내려와요.

여자: 여기 엘리베이터 문 위쪽에 '점검 중'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바로 위에 있는 종지도 못 봤어요?

③ 남자: 여기 이 서류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회의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했어요.

여자: 네, 고생했네요. (잠시 쉬고) 음. 여기 이 부분은 빼도 좋을 것 같은데요.

④ 남자: 여기 인사 발령 결과가 붙었어요. 경수 씨가 이번에는 승진했네요.

여자: 이번에도 승진에서 탈락되면 그만둘 것처럼 말하고 다니던데, 이 사실을 알면 기뻐하겠네요.

※ [16~18] 대화가 끝난 후에 남자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6. (3점)

남자: 저, 제가 일 년 전에 이 통신 상품을 3년 약정으로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여자: 네, 고객님. (곤란한 듯이) 그런데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있습니다.

남자: 제가 갑자기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게 돼서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없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 합니까?

여자: 아, 네. 그런 경우 증빙 서류를 본사로 보내 주시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남자: 그럼 본사 주소를 좀 알려 주세요.

17. (3점)

남자: 감독님. 이번 공연의 무대 배치 말인데요. 무대를 설치하고 그 앞쪽에 계단 형식으로 객석을 놓는 건 어떨까요?

여자: 음. (잠시 고민) 저도 고민해 봤는데요. 이번 공연의 취지가 관객과의 소통인 걸 고려하면 무대 둘레에 관객석을 배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무대가 중심에 있는 구조로요. 그러면 무대가 360도 회전해서 출연자들이 모든 관객과 소통할 수도 있으니까요.

남자: 공연의 취지에는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18. (4점)

여자: 이 기사 봤어요? 우리 회사 장학 재단에 대한 건데 오류가 있네요.  
 남자: 어, 무슨 오류요? 제가 아직 그 기사를 확인하지 못해서요.  
 여자: 여기 '대학생 어학연수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말이에요. 이거 백지화된 건인데 왜 들어갔을까요?  
 남자: 정말 잘못 들어가 있네요. 음, 우리 자료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아마 신문사에서 편집하면서 잘못됐나 봐요.  
 여자: 경위야 어찌 됐건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니까 어서 신문사에 연락해 보세요.  
 남자: 네, 알겠습니다.

※ [19~20] 다음 뉴스를 듣고 알맞은 제목을 고르십시오. (각 4점)

19. 남자: 지난 1일 배 부분이 투명한 개구리, 연필 끝에 올라갈 정도로 작은 도마뱀을 비롯한 30종 이상의 신종 생물이 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종 생물들은 매년 발견되고 있는데요. 열대 우림 지역이나 해양 지역이 그들의 주된 서식지라고 합니다.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생물은 1,000만 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미지의 생물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연계의 구조를 조금씩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뉴스 이창섭니다.

20. 여자: 국내의 건축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비율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어서 관계 당국의 고심이 컸는데요. 최근 푸른환경재단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대학연구소와 손을 잡고 폐자재 재생 시설을 세우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인 생산 기술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조만간 건축 폐기물을 내구성 강한 건축용 벽돌 등으로 100% 재활용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골칫거리에 불과했던 건축 폐기물, 그 변모가 기대됩니다. KBC 김윤정입니다.

※ [21~22]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여자: 영화배우 김민수 말이야. 어린 시절 고생한 이야기가 공개됐는데 가슴 아프더라. 이번에 그 이야기를 소재로 자전적인 영화도 찍는데.

남자: 나도 들었어. 근데 난 그 이야기가 좀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 쓸데 없이 왜 과거의 사생활을 공개하나 싶기도 해서 별로 와 닿지 않던데. 분명 영화 제작사가 영화를 홍보하려고 그런 일화를 일부러 알렸을 거야. 너처럼 감성적인 사람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려고.

여자: 그럼 영화사에서 흥행을 노리고 그런 이야기를 공개했다는 거네.

남자: 그렇지. 얼마 전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감성적인 이야기에 쉽게 감화되더라. 디지털 시대에도 이런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의 인생담을 공개한 건 이런 현대인의 감성을 자극하려는 영화사의 전략일 거라고.

21. 남자가 자기 의견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22. 들은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 [23~24] 다음 대담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남자: 오늘은 한국 소비자연맹 회장이신 김수정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한국의 소비자 운동이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자: 네. 최근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잠시 쉬고) 하지만 한국 소비자 운동의 선진화를 이끌고 갈 잠재력은 이미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운동가들이 노력을 한 덕분에 소비자 운동에 대한 인식이 차츰 높아졌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고요. 더욱 고무적인 것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 대학생들 사이에서 소비자 운동과 관련된 모임이나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24. 여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25~26] 다음 강연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남자: 최근 젊은 세대의 문학에 대해 많은 기성세대의 작가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나열한 의미 없는 작품’이라며 혹평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성세대 작가들은 보수적인 잣대를 버려야 합니다. 주제에 있어서 기성세대 작가들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주로 다룬 것과는 달리, 젊은 작가들은 개인적인 사건들에 관심을 가지죠. 형식 면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기성세대 작가들이 사건의 인과 관계나 선후 관계를 중시했던 것과는 달리 젊은 작가들은 정형화된 구조를 탈피해 사건을 유기적인 연결 없이 나열합니다. 과연 젊은 세대 작가들이 미시적인 안목만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통찰력이 부족해서 이런 작품을 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와 같은 주제와 형식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의도까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5.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26. 남자의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27~28]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여자: 최근 고층 빌딩 형태의 식량 농장을 세우고 층마다 다른 작물들을 재배해서 생산량을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존의 계단식 농법과는 달리 좁은 공간에서 과학 기술력을 동원하여 경제적으로 식량을 생산해 내자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이 식량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남자: 이상적인 농법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지력, 즉 땅의 힘이나 햇볕, 바람, 비와 같은 자연을 이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부터가 문제라고 봅니다. 작물을 키워 내는 힘은 토양입니다. 작물은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흙 속의 양분을 먹으며 자라야 하는 것이죠. 땅 위에서 햇볕을 쬐지 않고, 바람과 비를 맞지 않은 빌딩 속 작물은 공장에서 만든 인스턴트식품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27.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28. '새로운 농법'에 대한 남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29~30] 다음 대담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자: 그러나 모든 국가가 하나가 되어 기후 문제를 풀어 나가기에는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기후 문제가 국가 간 분쟁의 씨앗이 될 소지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남자: 네. 그건 기후 변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국가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또는 피해를 입을 국가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부 국가가 배출한 온실 가스로 인해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화롭게 살던 섬나라의 국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많은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재로서는 피해 국가들을 위한 대책이나 보상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정도니까요.

29. 여자의 말 앞에 나온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점)

30. 남자의 생각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4점)